**내 인생의 지침**

1660027 보건학부 언어재활학과 남택주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길 20대의 경험이 내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몽골 해외 봉사가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가장 값지고 큰 역할을 하게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준비 과정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학과 공부 하기도 급급하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괜히 해외봉사를 신청했다고 불평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 마음가짐 때문인지 몽골 가기 전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해외봉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몽골 비행기를 타면서 준비가 부족한 사실에 마음도 많이 불편하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88학교에 가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다름이 아닐까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고 환경에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터 놓는 시간에서 각자의 생각과 솔직한 생각을 나눴고 그 일을 계기로 주어진 일을 합심하여 열심히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도 노력 봉사나 교육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흡하지만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문화공연 전 새벽에도 남아서 같이 춤 연습과 합창 연습을 했고 문화공연 때 합창을 하면서 연습 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뭉클함과 끝날 것 같지 않던 봉사활동이 너무나 빨리 끝난 것 같다는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몽골 봉사와 문화탐방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값진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은 몽골 해외봉사 대원 29명과 함께 했던 추억과 힘들 때 힘이 되어줬던 단원들을 알게 되었고 좋은 인연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뿐만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 때 마다 이 몽골 봉사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지침을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총장님과 부총장님 많은 분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좋은 인연으로 남아주신 모든 몽골 대원들, 좋은 말씀과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 백상현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우릴 도와주신 머기 선생님. 몽골 해외봉사를 위해 애쓰고 생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